

달빛

각본/연출 최범호

S1.길거리, D, <오프닝 시퀀스>

환한 햇살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태양을 쳐다보던 동우는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려는 것을 애써 참아 내며 걸음을 옮긴다.그러다, 눈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를 발견 하게 된다.

미영이었다.

미영 (말 없이 미소 지으며 동우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 한다)

미영을 발견한 동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그러나, 미영이 서 있던 곳에 도착한 동우가 본 것은 아무도 없는 텅빈 공간이었다.

태양이 제자리에 서있는 동우에게 강한 햇살을 내리 쬐기 시작한다.

환한 햇살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동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화면이 암전 된다.

S2.동우의 집안, N

저녁9시 불꺼진 방안,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빈 문서 파일을 바라보는 동우의 모습이 보인다.소설을 쓰려고 손을 키보드에 갖다 대보지만 아무것도 써지지 않아 한숨을 푹 내쉬다.

그때, 위층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S3.동우의 회상, D, 짧은 플래시 백,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 짧게

동우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며 맞은 편을 바라보고 있다.

반대쪽에서 동우에게 손짓하는 미영이 보인다.

신호가 바뀌고 미영에게 다가갈때 햇빛이 동우의 눈을 강하게 찌른다.

차가 사람을 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동우

S4.동우의 집안, N, 현재로 다시 돌아온다, (달빛이 위층에서 계속 들린다)

동우의 옆에는 이제 아무도 존재 하지 않는다.
불꺼진 방안의 풍경이 동우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동우는 슬픈기억을 떠올리게 한 위층 사람의 연주를 원망 하듯 위층을 쳐다본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옷을 챙겨입고 달을 보러 옥상으로 올라간다.

S5.동우가 사는 건물의 옥상, N, 동우와 지연이 이미 옥상에서 자주 만난 시점

옥상 문을 열고 혼자 달을 바라 보고 있는 동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 고 인기척이 느껴진다.
동우의 위층에 사는 지연이었다.

지연이 동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다.
동우도 익숙한 듯이 인사를 한다.

지연 잘 지내시죠…?

동우 (지연을 힐끗 쳐다보며) … 그러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 연주 소리가 많이 시끄럽지는 않으세요…?

동우 (불만을 표현 하려다가 애써 참으며) 네 괜찮아요…

지연 (따라서 웃으며) 다행 이에요!! 혹시나 시끄럽지는 않을까 매번 걱정했거든요

동우 …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시 다물며) 사실.. 아니에요!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달빛을 바라보고 서있는 두사람의 뒷모습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S6.동우의 집 밖->안, N

계단을 타고 집으로 내려가며 위층의 지연과 가볍게 눈인사를 주고 받는 동우.
집에 도착하고, 집문 아래에 무언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햇빛 알레르기 연고’ 라고 쓰여진 작은 연고 다.
동우는 연고를 집어서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햇빛 알레르기 연고’ 들의 옆에 새로운 하나를 둔다.

그리고 침대에 눕는다. 동우가 눈을 감자 화면이 **암전** 된다.

S7.동우의 꿈, D,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 중간 부분에서 곡에 노이즈

테이블에 앉아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드뷔시의 ‘달빛’을 듣고 있는 동우와 미영의 모습이 보인다.따뜻한 햇살이 이 둘을 감싸고 있다.

동우가 미영에게 소설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이 썬진 모니터 화면이 지나가고, 햇빛이 동우의 눈을 찌르자 드뷔시의 달빛에 노이즈 낀 소리가 겹쳐지고 미영의 얼굴에 피가 가득하다.

S8.동우의 집안, D, 커튼으로 닫혀있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동우.
무엇 인가를 결심한 듯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긴다.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xxx 호에 사는 이동우 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윗집에서 밤마다 시끄럽게 피아노를 연주해서 고통이 너무 큼니다.다음 부터는 밤에 연주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잠시후 집주인 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집주인: 미안하게 됐어요! 위층 사시는 분이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

아무튼, 주의 줬으니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꺼 예요!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앉는 동우.

모니터의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소설을 쓰기 위해 문서 파일을 열지만, 잘 써지지 않는듯 빈 문서 파일을 응시한다.

S9.동우의 집안, N

어느덧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다.

계속 빈 문서 파일을 응시하던 동우는 시계를 힐끗 보고 위층을 올려다 본다.

평소에 들리던 달빛 연주소리가 들리 지 않는다.

동우는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는다.
달이 뿜어내는 달빛이 방안을 감싼다.
그리고, 위층에서 매번 연주 되던 드뷔시의 달빛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S10.동우의 회상 씬, D, 몽타주 시퀀스,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심상)

이어폰을 끼고 드뷔시의 ‘달빛’을 같이 듣고 있는 동우와 미영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쓴 소설을 미영에게 보여주는 동우.
집중해서 동우가 쓴 소설을 읽어보는 미영, 환하게 웃으며 동우의 어깨를 두드려 준다.

침울해 보이는 동우의 표정, 출판사에서 동우의 소설을 출판 할 수 없게 됐다고 온 문자를 미영에게 보여 준다.괜찮다는 듯이 다시 동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웃어주는 미영.

출판사에서 동우의 소설을 출판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자가 보이고, 동우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미영을 만나러 뛰어간다.
신호등을 사이에 두고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 하며 환한 미소를 보이는 미영이 보이고,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너던 순간 동우의 눈을 강한 햇살이 찌른다.

드뷔시의 달빛이 끊기고 차에 사람이 치인 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S11.동우의 집안, N

공간이 동우의 어두운 방으로 바뀌고, 생각에 잠긴 표정의 동우의 모습이 보인다.
어두웠던 동우의 집안이 점점 연극적인 조명 톤으로 밝아지기 시작하고, 뒤를 돌아보니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거의 동우와 미영의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재의 동우의 표정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연극적인 조명이 사라지고, 방안에는 푸른 달빛 만이 가득하다.
동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빈 문서를 바라보다가, 타이핑 을 시작한다.

그는 더이상 환한 햇살이 두렵지 않았다.

문장을 적은 동우, 옆을 보니 창문앞에서 푸른 달빛을 받고 서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인다.

동우는 지연의 옆으로 다가간다.동우에게 ‘햇빛 알레르기 연고’를 건네는 지연 연고를 받고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 지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고개를 들어 위층을 바라 보는 동우.

S12.지연의 집, D, 과거(동우를 만나기 전의 시점)

환한 햇살이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을 감싸기 시작한다.
지연의 얼굴과 팔이 점점 붉게 물들어 가기 시작한다.

얼굴이 따가워 지는 것을 느꼈는지 잠에서 깨어나 얼굴에 손을 대는 지연.
급히 창문으로 가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방안에는 조용한 어둠이 자리한다.

서랍으로 가서 ‘햇빛 알레르기 연고’를 꺼내는 지연 익숙한 듯, 얼굴과 팔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한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머니에게 문자가 와있다.

‘승호 만으로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우리라도 잘 살아 봐야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옆에 놓인 피아노를 쳐다본다.
화면은 지연이 과거에 콩쿠르 대회를 나갔던 시점으로 전환된다.

S13.콩쿠르 대회 대기실, N, 실내, 대과거(지연이 콩쿠르를 나갔던 시점)

앞 참가자가 연주하는 드뷔시의 ‘꿈’이 대기실에서 살짝 씩 들리고, 긴장한 표정의 지연이 보인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에 진동이 오기 시작한다.
전화를 받는 지연.

지연 어, 엄마 나 이제 나가야 되서 전화 길게 못해

엄마 (울먹 이며) 지연아… 승호가 너무 힘들었나봐…

지연 … 그게 무슨소리야?

S14.콩쿠르 대회 피아노 연주장, N, 실내, 대과거

멍한 표정으로 피아노 연주장에 가서 앉는 지연.

심사위원들이 지연을 냉정하게 쳐다보고 있고, 강한 조명이 지연의 눈을 찌르기 시작한다.

지연은 드뷔시의 ‘꿈’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S15.지연의 집 옥상, N, 꿈 (현실과 환상이 혼재) , 배경음악 드뷔시의 ‘꿈’

지연이 남동생 승호와 옥상에서 달을 보고 서있다.
푸른 달빛이 승호와 지연을 비추고 있다.

지연: (명들어 있는 승호의 눈을 보고) 또 맞고온거야?

승호: ...

지연: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래? 햇빛 알레르기가 뭐 별거야? 누나도 알레르기가 심하지만 그냥 신경 안쓰고 살고 있잖아. 그런 애들은 니가 기죽어 하면 더 괴롭힌 다니까!

승호: ... 나도 너무 힘들어 누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는 승호)

지연: 승호 야!! 어디 가!

지연은 승호를 쫓아가지만 승호는 하얀색 빛을 가득 받으며 지연을 보고 웃으며 점점 화면에서 사라져 간다.
드뷔시의 ‘꿈’을 연주하던 소리에서 광하고 건반을 내리치는 소리로 바뀌고 연주소리가 끊긴다.

S16.지연의 집 옥상, N, 과거, 동우와 지연의 첫만남

옥상으로 향하는 지연.
달을 보고 서있는 동우가 보인다.
동우의 옆에서서 같이 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지연, 무표정한 동우를 슬쩍 보고 말을 건다.

지연: (가만히 달을 바라보다가 옆을 보고) 밤 공기 썩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동우: (지연을 힐끗 쳐다보며) ... 네

지연: 저도 좋아 해요, 달 보면서 서있는 거요

동우: 보통 사람들은 햇빛을 더 좋아 하던데, 신기하네요..

지연: 햇빛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따갑게 하더라고요

동우: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지연: 혹시 드뷔시의 ‘달빛’ 이라는 곡 아시나요?

동우: ... 좋아했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쪽은 좋아하시나요?

지연: 네.. ‘달빛’은 제 남동생이 정말 좋아했던 곡 이었어요...

드뷔시의 ‘달빛’ 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S17.몽타주 시퀀스, N, 동우와 지연의 이야기: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 압축,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

약국에서 ‘햇빛 알레르기 연고’ 한개를 사려다가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지연. 집으로 올라가다가 아래층에 위치한 동우의 문 앞에다가 햇빛 알레르기 연고를 두고 간다.

잠시 나갔다 집에 도착한 동우가 ‘햇빛 알레르기 연고’를 바라 본다. 연고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연고를 넣는다. ‘햇빛 알레르기’ 연고 한개가 빈 서랍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옥상에서 달빛을 받으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우와 지연의 모습이 보인다. ‘햇빛 알레르기’ 연고가 어느새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지연의 모습과, 글자를 썼다가 다시 지우고 를 반복하며 빈 문서파일을 바라보고 있는 동우의 모습이 교차로 보인다.

그리고, 집주인이 지연에게 찾아와 피아노를 손으로 가리키며 엑스자 표시를 하는 것이 보인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지만 동우가 보이지 않는다. 지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옥상에서 내려간다.

뒤 늦게, 옥상문을 열고 나타나는 동우의 모습이 보인다.

S18.지연의 집안, D, 현재(동우 시퀀스 마지막 시점에 이어서), 실내

어두운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을 깨우는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의아해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지연.

문을 조심스레 열어본다.

동우가 서있었다.

동우의 뒤로 환한 햇살이 가득하다.

동우: (지연에게 햇빛 알레르기 연고를 건넨다)

지연: (잠시 멈칫 하다가, 연고를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건넨다)

햇빛이 지연의 얼굴을 가득 내리 쬐기 시작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지만 부끄러워서 인지 알레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END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

1.제목

달빛

2.로그라인

최근에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로 인해 햇살을 받으면 그 슬픈 기억들이 떠올라 바깥에 나갈 수 없게 된 소설가 지망생 동우와 햇빛 알레르기를 앓던 남동생이 자살을 하고 그 죄책감에 대낮에 바깥을 나가는걸 꺼리게 된 지연이 드뷔시의 '달빛'을 통해 연결 되는데...

3.장르

드라마

4.기획의도

세상은 사람들에게 감당 할 수 없는 시련을 주곤 한다.우리는 그 시련을 견뎌 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 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같은 건물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두 인물이 드뷔시의 '달빛' 연주를 통해 연결되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어떻게 '달빛'이라는 곡 하나로 마음이 연결 될 수 있는 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나는 무수히 많은 언어적 소리 못지 않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리 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뻑뻑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타인의 아픔이 연주소리에 담겨 전달 될 수 있다고 여겼다.

혼자만의 지옥에 갇혀 허우적 대던 두사람이 함께하는 지옥으로 나아가는 순간을 그려 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 뿐이라는 거창 할 것 없지만 그 어떤 말 보다 무거운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다.

5.등장인물

동우

소설가를 꿈꾸지만 남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인물로, 자신의 소설을 끊임없이 지지해 주던 여자친구가 있어 힘을 낼수 있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출판사에서 동우의 소설을 출판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미영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동우는 미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더이상 환한 햇살이 가득한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게 된다.

지연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지만 피아노 라는 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 지연의 남동생 또한, 지연 처럼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연은 이런 동생이 안타까워 더 이상 ‘햇빛 알레르기’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강요하지만, 동생은 지연의 중요한 피아노 콩쿠르 대회날 스스로 이 잔인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지연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예전보다 심해지며 어두운 방안에 갇히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처럼 달을 보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지연은 자신과 비슷하게 햇빛에 알레르기가 있는 듯한 동우를 만나게 된다.

6. 시놉시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환한 대낮에 태양을 멍하니 바라보던 동우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참아내며 발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눈앞에 보이는 여자친구 미영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달려가는 동우, 그러나 미영이 서 있던 곳에 도착한 동우가 본 것은 텅빈 정적 뿐이었다.

허탈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서 있던 동우는 강하게 내리 쬐는 햇살을 받으며 숨이 막혀 오는것을 느끼고 그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동우의 이야기]

여자친구와의 슬픈 기억때문에 햇빛을 받는 것을 피하게 된 동우는 방안에 갇히고 만다.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만, 더 이상 소설이 써지지 않는다.

평소 답답함을 느끼면 자주 옥상에 올라가 달빛을 바라보곤 했던 동우는 어느날과 다름 없이 옥상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처지의 지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위층 여자는 아마도 피아니스트인 것 같다.

매일 밤 9시 들려오는 드뷔시의 달빛 연주소리를 들으며 동우는 여자친구와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 한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지워버리는 비극적인 마지막 기억에 사로잡힌 동우는 더이상 여자친구인 미영이 좋아했던 드뷔시의 ‘달빛’을 듣고 싶지 않다.

저녁 9시마다 들려오는 연주소리를 참던 동우는 악몽을 꾸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해 집주인에게 위층에 사는 지연이 밤에 피아노 연주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문자 한다.

그러나, 막상 드뷔시의 ‘달빛’이 들리 지 않자 동우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달빛’ 연주를 듣기 시작하고, 비극에 가려져 잊어 버리고 싶었던 여자친구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길수 있게 된다.

그리고, 푸른 달빛을 받고 옥상에 같이 서있었던 지연 과의 만남 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지연과 다시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위층으로 향하게 된다.

[지연의 이야기]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지만 피아노 라는 꿈을 따라가며 당당하게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자신하는 지연.

반면에, 자신과 똑같이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남동생 ‘승호’ 는 매번 학교에서 얼굴과 팔이 붉어지는 모습을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지연은 승호가 자신처럼 당당하게 ‘햇빛 알레르기’에 맞서 길 원하지만 승호는 적극적으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다.

중요한 콩쿨 대회가 열리는 날,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 한통을 받는다.

승호가 스스로 잔인한 세상에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어머니. 지연은 동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며 피아노 연주를 망치게 되고,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예전보다 심해지며 어두운 방안에 홀로 갇히게 된다.

달을 보고싶어 옥상으로 올라간 지연은, 그곳에서 자신처럼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햇빛 알레르기’를 앓는 것 처럼 보이는 동우를 만나게 된다.

매일밤 저녁 9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며 홀로 고통을 달래던 지연은 어느날 집주인으로 부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연주를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엔딩]

동우는 지연의 집으로 조심스레 한걸음, 두걸음 발걸음을 옮긴다.

문을 두드리고, 지연이 문을 열어준다.

환한 햇살이 동우와 지연을 가득 비추기 시작한다.

지연은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것인지 부끄러워서 그런건 지 알 수 없지만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